



## 박종훈 신임 고대 안암병원장 취임식 개최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장 안전한 병원 만들어 갈 것 | 연구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의학을 준비 할 터

‘박종훈 제28대 고대 안암병원장’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박종훈 신임 원장은 ▲가장 안전한 병원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연구 분야 집중투자 ▲함께하는 즐거운 병원 등 4가지의 중점과제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대 안암병원은 1월 15일(월) 오후 3시 유광사홀에서 박종훈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이기형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나춘균 의과대학교우회장 등 내외귀빈과 교직원 400여명이 참석해 신임 원장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박종훈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철저히 환자 중심의 선진의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다”며 “올해는 JCI 국제 의료기관인증 재평가가 있는 해다. 이 인증은 환자 안전이라는 기본을 되새기고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자발적인 개선활동이자 환자사랑의 실천이기에, 철저히 준비하고 스스로를 담금질해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며, “환자가 기대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 의료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기대와 우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파악하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건립중인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를 구심점으로 연구분야에 집중투자하여 현재를 넘어 미래세대에 까지 건강한 유산을 남기겠다”고 말했으며, 마지막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함께하는 즐거운 병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은 식사를 통해 “박종훈 신임 원장이 내부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발휘해 안암병원을 더욱 힘차게 견인해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연구중심의 대학병원으로서 기존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미래형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건립을 통해서 미래형 의료연구에 앞장서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본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기형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병원장과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고 더욱 내실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진료와 연구, 교육 등 모든 분야 전반에 걸쳐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희망

한다”며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를 기반으로 세계수준의 메디컬 콤플렉스로 성장하는 고려대의료원의 핵심 축으로써 고려대학교 전체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춘균 의과대학 교우회장은 축사를 통해 “박종훈 신임 원장은 의료원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았던 만큼 병원운영을 잘 해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 고대 안암병원이 한국의 의료를 선도하고, 세계 의료를 이끌어가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임식에서 교직원 대표가 신임 박종훈 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에 취임한 고려대 안암병원장 박종훈 교수는 1965년 생으로 1989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적정진료관리위원장,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의료원 대외협력실장, 의무기획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 (사)북한인권정보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 대한수혈대체학회 정책이사를 맡아 활발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 유방암, 5년 넘어도 완치 아냐

### 유방암 종양성형수술로, 흉터 없이 유방모양 보존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암 생존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암이 있는데, 바로 유방암(2005년 3.3% → 2015 4.6%, 국가암등록 통계)이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에서 갑상선 암에 이어 두 번째로 환자가 많다.

#### 5년 지나도 완치 아냐, 10년 후에 재발하기도

다행히도 유방암은 2기 이내에 발견하고 표준치료를 받을 경우 생존율이 90%가 넘는 정도로 비교적 치료가 가능한 암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만큼 재발 위험이 높은 암이기도 하다. 2016년에 발표된 한국유방암학회의 자료를 보면 국내 유방암 재발율은 6~20%다. 유방암은 대부분 5년 이내로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명중 1명꼴로 10년 후에도 재발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전문의들은 초기 유방암 치료 이후 5년이 지나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통상적으로 유방암 환자는 절제와 같은 외과적 수술과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 정기적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검사를 시행하는데, 유방암 생존자의 경우 수술한 유방 및 림프절의 국소 재발 폐, 간, 뼈 등에 전이로 인한 전신 재발이 가능하다.

특히 유방암 치료의 일부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폐암, 육종암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치료 후 10년이 지나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에, 암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강조된다.

#### 유방암 종양성형 수술법, 모양은 유지하고 흉터는 작게

유방센터(센터장 정승필)에서는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촬영술,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정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후, 최소절개를 통해 유방보존술과 피부보존유방절제술, 유방재건술을 실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후에도 원래대로의 유방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술 전후 검사는 물론 항암치료, 항호르몬치료, 방사선치료 등에서 다학제 진료를 통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료 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지치료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수술의 경우 유방암 종양성형 수술법이라는 최신 수술법을 이용하여 암을 제거함과 동시에 남아있는 자가유방조직을 이용하여 원래의 유방모양을 최대한 유지한다.

#### 자가조직+보형물 이용한 로봇 하이브리드 유방 재건

유방암 확진 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외과적 절제술로 인해 가슴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하게 된다. 가슴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절제술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비교적 덜한 반면 가슴 전체를 절제하는 전절제술은 수술 후 여성성을 상실했다는 심리적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술 후 재건수술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는데, 뱃살이나 등살 같은 자가조직이나 보형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절개범위가 적고, 좁은 부위에서도 자유로운 수술이 가능한 로봇 수술이 유방재건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고유방센터 윤율식 교수(성형외과)가 국내최초로 지난 2012년 중순부터 로봇 유방재건술을 성공시킴, 흉터없는 유방재건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유방센터 윤율식 교수(성형외과)는 “로봇수술은 기존의 수술방법에 비해 기능적, 미용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이브리드 유방재건은 기존방법들의 장점을 배가시킨 방법으로 환자들이 수술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의 협진과 환우회 통해 통합적 치료시스템 구축

유방센터는 하드웨어부분에서 통합진료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환경을 구축했다. 센터 내에서 진료 및 검사, 치료 수술스케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방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과 유방질환과 관련이 있는 과목의 전문의들과 협진체계를 갖췄다. 또한 환자에게 교육과 환우회를 통해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통합적 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2. 여성들이 유방암을 대비해 주의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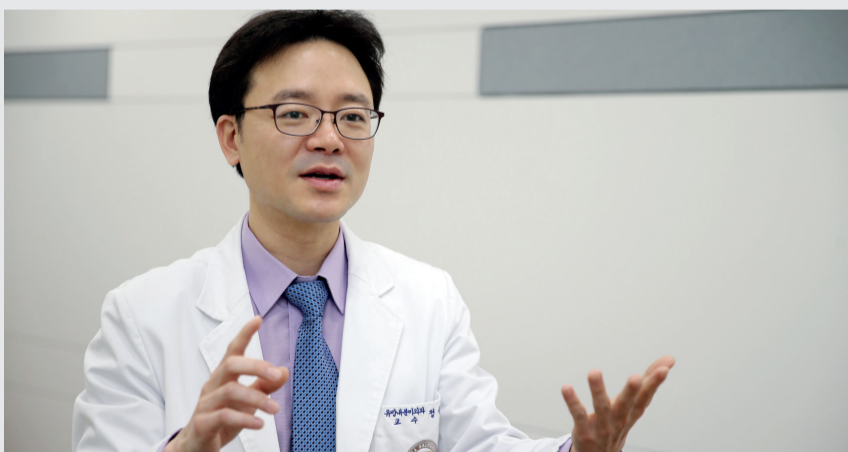
현재까지 유방암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전한 예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위험인자를 피하는 생활습관은 도움이 된다.

한국여성의 유방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위험인자를 정리하자면, 비만은 폐경 후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운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은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기에, 적절한 체중조절과 운동이 필요하다. 흡연의 경우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음주의 경우 폐경여부에 상관없이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유방암은 0기 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0%에 가까우나 4기의 경우 30%미만이 다. 그러므로 한 달에 한번 정기적인 자가진단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3. 환자들에게 당부하실 것이 있다면?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가 몸에 좋은가, 뭐먹으면 되나, 뭐먹으면 안되나 같은 내용들이다. 사실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건 운동 뿐이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인터넷정보에 휘말리면 안 된다. 외래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잡힌 식습관이 중요하고, 유방암 발병이 비만과 관련있으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



## <정승필 유방센터장 인터뷰>

### 1. 유방암 왜 늘고 있는가?

유방암 발병률은 19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방암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는 유방암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여성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초경은 빨라지는 반면 폐경은 점차 늦어지고 모유수유가 줄며 여성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유방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며, 발견빈도가 늘어난 것도 유방암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유방암 발병률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부른 수술 주의!! '척추통증'


### 명확한 진단과 적절한 단계적 치료법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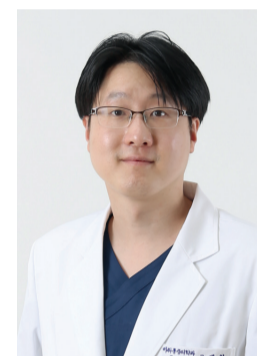
추간판에 의한 신경압박은 가장 흔한 요통 및 하지통증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경우 약물치료와 함께 보존적인 물리치료 등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효과가 없는 경우 바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수술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신경의 압박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를 위해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많이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가속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일단 수술을 하게 되면 주변 조직의 유착 및 해부학적 구조의 변형으로 인해 재발이나 척추의 새로운 질환이 생겼을 때, 시술이나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척추 질환의 경우 먼저 비수술적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는데, 비수술적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가장 간단한 치료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신경이 자극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사치료를 통해 자극받는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화학적인 감압을 통해 치료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 바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사치료 이외에도 시술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주사치료를 권하는 것은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어디인지를 찾는 중요한 진단적 목적도 있다. 따라서 주사치료를 했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 부위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통의 원인이 특정 신경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사치료를 통해 지속적인 효과를 못 보는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인 감압을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을 해볼 수 있다. 이에는 신경성형술이나 좁아진 곳을 풍선으로 확장시키는 방법등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 우수한 치료 성적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방법 들은 정확한 원인에 대한 진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시술 방법이라도 정확한 원인에 대한 파악 없이 시행하는 것은 치료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수도 있다.

옛날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는 말이 있다. 빈대를 잡으려면 살충제를 써서 빈대를 박멸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살충제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집을 다 태우는 것은 빈대는 확실히 박멸할 수 있어도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척추 질환의 경우도 가능한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서 원인만 제거 한 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도움말 : 마취통증의학과 고재철 교수>



## 쌀쌀한 겨울 오면 더 아찔...

###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라고도 일컬어지는 돌연사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명당 40-50명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급성심근경색은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과거 급성심근경색이 기후와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며, 대개 겨울에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정점을 이루고 여름에 저점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기온이 낮을 수록 급성심근경색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의 환자들 기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동맥경화반이 어떠한 이유로 파열되어 혈전이 생성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혈관이 완전 폐쇄되어 발생하게 된다.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흡연의 경우 하루의 한갑씩 핀다고 했을 때, 남자는 3배 여자는 6배정도 위험도를 높인다고 한다. 또한 비만과 운동부족은 급성심근경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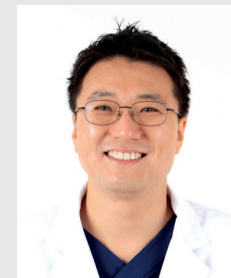
발생을 분명히 증가시키며, 이전의 연구들에서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10-2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없는 단순 비만이나 운동부족 자체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그다지 많이 높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만과 운동부족이 관상동맥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런식으로 연관되어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에 특이적인 유전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집안에 이러한 환자들 이 경우에 그 집안 내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은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도를 40-60%정도 증가시키는 것을 알려져 있다. 특히 가족 중 60세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거나 돌연사가 있는 경우, 그러한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고령이나 당뇨병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많은 경우, 심부전과 같은 이미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다. 이러한 예후인자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착당시의 상태이며, 특히, 병원의 도착당시 쇼크상태에 이미 빠져있는 경우의 생존률은 아직 턱없이 낮은 실정이며,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되기전에 병원에 빨리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식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땀이 날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회이상, 한번에 30분이상, 일주일에 총 2시간반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심근경색의 위험요소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는 것은 심근경색의 예방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움말 : 순환기내과 주형준 교수>





## 맹추위에 육신거리는 손끝, 발끝 동창, 동상 주의하세요!

한랭질환자가 속출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한에 신경을 쓰지만 손이나 발, 얼굴 등은 차가운 공기에 장기간 노출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손끝, 발끝, 귀, 코 등 노출된 부분의 혈관이 좁아지고 동상이나 동창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동상과 동창은 차가운 기온, 노출된 시간, 바람의 세기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동창은 비동결 손상의 일종으로 축축한 상태에서 추위에 노출이 되면서 혈관 수축 및 피부에 염증 반응으로 인해 발생된다. 노출된 부위가 붉게 변하고 붓게 되며 심할 경우 물집이 생기고 굵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감각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동상은 동결 손상으로 추위에 의해 피부 조직이 손상을 입는 것이다. 추위에 노출되어 동결 및 해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혈관에 혈전이 생성되어 피부가 괴사가 발생하게 된다. 초기에는 발적 및 부종이 발생하지만 진행하게 되면 출혈성 물집이 발생하고 마지막에는 손상된 부위가 검게 변하고 괴사가 발생한다.

동상과 동창 공통적으로 차가워진 신체부위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 중 하나지만 무턱대고 뜨겁게 하거나 비비면 안 된다. 특히 동상의 경우 다시 추위에 노출이 되는 경우 동결과 해동이 반복되면서 손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추위에 재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부위를 절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한갑수 교수는 “추운날씨에 야외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한과 방풍에 신경을 쓰고, 양말이나 장갑 등이 젖었다면 해당부위의 온도를 더욱 빨리 낮춰 동상에 걸리기 쉬워지므로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갑수 교수는 “동상에 걸렸을 때는 불을 쬐는 등의 급격한 온도변화보다는 37-39도의 따뜻한 물을 이용하여 서서히 따뜻하게 해야 2차적인 조직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며, “동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응급의학과 한갑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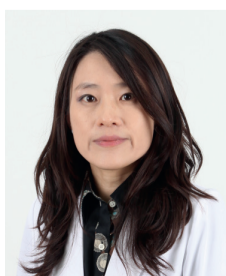
## 매서운 한파, 저체온증 부른다

소아·노약자 특히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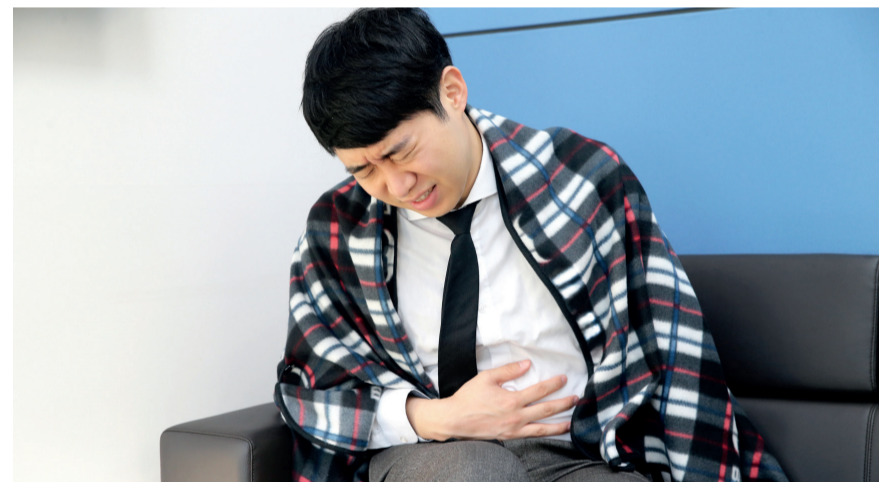
저체온증은 주위, 바람, 젖은 옷 등에 의해 우리 몸의 온도가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인체 내 장기들은 기능에 심각한 악 영향을 받는다. 심장은 심박출량과 혈압이 떨어지고, 또한 악성 부정맥이 출현하여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 추위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조직에서의 산소 이용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공팔을 비롯한 여러 장기의 기능을 악화시키고 혈액응고장애 등 전신적 악영향을 초래한다.

저체온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바람과 추위를 피해야 하며 옷이 물에 젖었다면 즉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 샤워 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야외에서 곧바로 따뜻한 곳을 찾기 힘든 경우라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마른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의식이 흐려져서 스스로 이런 행동을 못할 경우는 주위 사람이 따뜻한 옷 등으로 보온하고 119에 전화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의학과 김수진 교수는 “저체온증 환자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불을 가까이 하거나 뜨거운 물을 부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이거나, 젖은 옷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저체온증의 유발원인을 교정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재가온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응급의학과 김수진 교수〉



##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20℃에도 생존하는 식중독 바이러스

겨울철 식중독의 주원인은 ‘노로 바이러스’로 기존의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며,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감염 원인으로서는 생선, 조개, 굴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집단 배식에서 손이 오염이 된 조리사의 음식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구토물, 분변 등에 접촉된 경우 등이 있다.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오심(메스꺼움), 구토, 설사의 증상이 발생하며 약 2~3일간 지속되다 빠르게 회복된다. 노로 바이러스 장염은 소장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의 감염이기 때문에 피가 섞이거나 점액성의 설사는 아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

감염내과 김선빈 교수는 “노로바이러스의 치료는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치유되곤 한다”며 “노로바이러스에 특수한 항바이러스제는 없으며, 노로바이러스 장염에서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수분을 공급하여 탈수를 교정해주는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지며,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로도 부족한 수분을 채울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노인, 임신부, 당뇨, 면역억제상태, 심한 복통 그리고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합병의 위험이 높아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감염내과 김선빈 교수〉



## 2017 제5회 환자 안전의 날 성료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난 12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2017년 제5회 환자 안전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약 1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낙상 환자 안전관리 실제(삼성서울병원 김현아 QI팀장) ▲환자안전 정책의 이해 및 최신경향(적정진료관리팀 박미정 부팀장)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개선활동(적정진료관리팀 김은희)등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오류를 통해 배우자' 프로그램에서는 환자안전사고 개선사례 발표를 통해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한편, 전날 고대 안암병원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62명의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워크숍은 안전강의 후 조별토론을 실시하는 등 안전의식을 다졌다. 



## 호스피스회, 암 환자에게 가발 기증

호스피스회(회장 정형외과 박중훈 교수)가 12월 13일(수) 항암치료로 모발을 잃은 암 환자들에게 가발을 선물하며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했다. 이 날 호스피스 회장 박중훈 교수는 의료진과 호스피스회 회원들과 함께 환자들에게 가발은 씌워주며 쾌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사랑을 전달했다. 호스피스회는 주기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투병생활로 인해 모발을 잃은 환자들에게 따뜻한 온도를 전달하고 있다.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한 환자는 "긴 투병생활에 지쳐있었는데 희망과 활력을 되찾았다"며, "항상 도와주시는 호스피스회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호스피스회는 환자최우선 가치와 더불어 진정한 환자 중심의 의료를 선도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넘어 마음으로 다가가는 진정성 있는 도움으로 환자들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신경외과 강신혁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신경외과 강신혁 교수가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강신혁 교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신의로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의로기술평가 업무에서 탁월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이다. 이는 보험급여에 관련된 신의로기술 평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한 공로이다.

강신혁 교수는 뇌종양 질환의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 환자중심의 면역치료제 임상시험, 연구중심병원 핵심인력으로 신의로기기 개발 및 산업화, 다수의 교과서를 집필, 권위있는 국제학회지에 50여편 이상의 논문 발표, SCI 국제학술지 심사위원과 학술지 편집위원으로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쳐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2017 꿈씨(KUM-C)봉사단 결과보고대회 개최

고대 안암병원이 지난 12월 21일(목) 오후 4시 의과대학 유병주홀에서 '2017년 꿈씨봉사단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과보고대회는 교직원들에게 2017년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추후 더욱 활발한 꿈씨봉사단 활동을 이어가고자 실시되었다. 특히, 봉사단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봉사에 나서신 교직원들도 더욱 자발적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17년 꿈씨봉사단 활동 결과보고에 따르면, 올해 꿈씨봉사단은 총 148명의 교직원들이 40회에 걸쳐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외국인, 새터민, 장애인, 노숙인 등 29개 기관, 2,510명의 의료소외계층에게 온기 넘치는 의료를 전할 수 있었다. 또한, 7곳의 협력기관이 적극 참여해 더욱 풍성하고 질 높은 의료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진료를 받은 대상자들은 평소 비용이 높아 제대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초음파, 체성분, X-ray, 치과치료 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혈액형을 몰랐던 새터민 학생들이 검진을 통해 본인의 혈액형을 알게되거나,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보였던 대상자가 검진을 통해 갑상선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해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는 등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도 큰 성과를 남겼다. 




## 환경보건센터 1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정지태)는 12월 14일 오후 2시 의과대학 본관418호에서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다.

'환경과 건강 그리고 음악이 융합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고려대 안암병원 환경보건센터 10주년 기념 콘서트'는 환경보건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다음 10년을 소망하는 자리로 환경보건 관계자 및 전문가, 환자, 지역주민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환경보건 관계자 및 전문가, 환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계와 천식.알레르기질환 관리'이라는 주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연주와 강연이 번갈아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됐다. 강연 이후에는 천식.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에 대해 방청객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요인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과 대처방안 연구,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방법 연구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등 연구기관이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환경보건센터는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연구와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올해로 지정 10주년을 맞이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지역주민은 "천식이나 알레르기 같은 질환은 많이는 들어봤지만, 치료법이나 예방법 같은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 질환이었다"며 "하지만 감미로운 연주와 함께 강연을 들으니, 질환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었다. 이러한 행사가 자주 열려 환경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 'The Bridge와 함께하는 판타스틱 Today' 행사 개최

고대 안암병원이 지난 12월 20일(수) 유광사홀에서 'The Bridge와 함께하는 고려대학교병원 판타스틱 To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병원, 연예인 자선봉사단 'The Bridge(단장 김예분)'가 주최하고, 대한영상의학의료봉사회가 후원해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The Bridge와 함께하는 다과회'가 개최되었다. 다과회에서는 여성환자 및 보호자, 중증 소아환자 및 보호자와 The Bridge 멤버들이 함께 간단한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공연은 백승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10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판타스틱 Today' 공연에서는 ▲이상하 프로젝트 밴드의 'Merry Christams' 공연에 이어, ▲개구우먼 이성미와 함께하는 힐링토크, ▲가수 에스더의 '송애', 'You Raise me up' ▲가수 박지현(V.O.S)의 '보고싶은 날엔', '너에게 주고 싶은 세가지' 등의 연주가 이어졌다. 공연 이후에는 경품추첨 퀴즈경연이 이어졌다. 또한, 마지막으로 The Bridge 멤버 전체가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The Bridge는 단장을 맡은 배우 김예분을 비롯해 왕빛나·임혜진·이지은, 미스코리아 이은희, 모델 박돌선, KBS 아나운서 백승주, PD 강승연, 음악감독 김미래 등이 활동하고 있다. 





# 미래의학을 위한 새로운 도약

중증환자 치료 위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  
첨단 인공지능형 병원 AI-Driven Hospital  
의료기관의 역사를 새로 쓸 융복합 연구의 혁신

## 고려대학교병원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고려대학교병원  
KOREA UNIVERSITY HOSPITAL

HUMAN-CENTERED

PRECISION MEDICINE

HOSPITAL INNOVATION

AI-DRIVEN HOSPITAL

INTELLIGENT MEDICAL CENTER

